

The Pearl of Torah

Matthew 26:13–24 through the Lens of Numbers 16:1–18:32 and 1 Samuel 11:14–12:22

Core Passage

Matthew 26:13–24 records two contrasting responses to Moshiach: a woman pours out costly devotion, while Yudas secretly prepares betrayal. Yehoshua then announces that one of the Twelve will hand Him over.

핵심 본문

마태복음 26:13–24 는 메시아를 향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여준다. 한 여인은 값비싼 헌신을 쏟아부었지만, 유다는 은밀히 배반을 준비한다. 이어서 예호슈아는 열둘 중 하나가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Torah Layer — Korach and the Rebellion

Numbers 16–18

Korach challenged the authority that YHWH had established through Moshe and Aharon. His rebellion appeared spiritual, but beneath it lay ambition and self-exaltation.

Yudas likewise walked among the disciples and appeared faithful outwardly, yet inwardly nurtured another allegiance.

Korach stood near the sanctuary but opposed YHWH's chosen servant. Yudas sat at the same table as Moshiach yet prepared to betray Him.

The central issue in both accounts is not proximity to holiness but submission to YHWH.

민수기 16–18 장

고라는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였다. 그의 반역은 영적으로 보였지만 그 밑에는 야망과 자기 높임이 있었다.

유다 역시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겉으로는 신실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다른 충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라는 성소 가까이에 있었지만 야훼께서 택하신 종을 대적하였다. 유다는 메시아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이야기의 핵심은 거룩함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야훼께 얼마나 복종하느냐이다.

Prophetic Layer — Saul, Samuel, and the Heart of the People

1 Samuel 11:14–12:22

After Saul's victory, Samuel gathered Israel and reminded them that YHWH alone was their true King.

사무엘상 11:14–12:22

사울의 승리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모아 참된 왕은 오직 야훼이심을 상기시켰다.

Israel had outwardly celebrated YHWH's deliverance, yet their hearts had previously desired another ruler.

Samuel warned that external loyalty means little if the heart is not fully devoted to YHWH.

Yudas becomes the ultimate example of outward discipleship without inward faithfulness.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야훼의 구원을 기뻐했지만, 이전에 그들의 마음은 다른 통치자를 원하고 있었다.

사무엘은 마음이 온전히 야훼께 드러지지 않았다면 외적인 충성은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였다.

유다는 외적인 제자도는 있었지만 내적인 신실함이 없었던 최종적인 예가 된다.

The Hidden Connection

The Woman and Korach

The woman poured out what was precious. Korach grasped for what was not his.

One surrendered herself; the other exalted himself.

True worship releases ownership; rebellion seeks ownership.

Yudas and Korach

Both remained within the covenant community while their hearts drifted away.

Both concealed their true intentions until judgment arrived.

Both demonstrate that religious position does not guarantee covenant faithfulness.

Samuel and Yehoshua

Samuel called Israel to examine their hearts.

Yehoshua caused each disciple to ask, "Surely not I, Master?"

여인과 고라

여인은 귀한 것을 쏟아부었지만, 고라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붙잡으려 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높였다.

참된 예배는 소유를 내려놓지만, 반역은 소유하려 한다.

유다와 고라

둘 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져 갔다.

둘 다 심판이 임할 때까지 진짜 의도를 숨겼다.

둘 다 종교적 위치가 언약적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무엘과 예호슈아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촉구하였다.

예호슈아는 각 제자가 “선생님이시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게 하셨다.

Both passages reveal that self-examination precedes restoration.

두 본문 모두 회복에 앞서 자기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e Pearl

The pearl hidden within these passages is that YHWH measures the heart more than position, privilege, or proximity.

이 본문들 속에 감추어진 진주는 야훼께서 지위나 특권이나 가까움보다 마음을 더 보신다는 사실이다.

Korach was a Levite. Yudas was an apostle. Israel was the chosen nation. Yet all were called to examine whether their hearts truly belonged to YHWH.

고라는 레위인이었고, 유다는 사도였으며,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의 마음이 참으로 야훼께 속해 있는지를 살펴야 했다.

The unnamed woman possessed no office or title, yet her act was declared worthy of remembrance wherever the Good News would be proclaimed.

이름 없는 여인은 직분도 직함도 없었지만, 그녀의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선언되었다.

Heaven remembers surrender more than status.

하늘은 지위보다 헌신을 기억한다.

Final Synthesis

Numbers 16–18 warns against the pride of Korach.

민수기 16–18 장은 고라의 교만을 경고한다.

1 Samuel 11–12 warns against divided loyalty.

사무엘상 11–12 장은 나뉜 충성을 경고한다.

Matthew 26:13–24 reveals both warnings reaching their climax in the contrast between the woman and Yudas.

마태복음 26:13–24 는 여인과 유다의 대조를 통해 이 두 경고가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One life is poured out in love. Another life is consumed by hidden rebellion.

한 삶은 사랑으로 쏟아지고, 다른 삶은 숨겨진 반역에 사로잡힌다.

The question placed before every disciple is the same: Will we be like the woman who gives everything to YHWH, or like Korach and Yudas who seek their own way while standing among the holy?

모든 제자 앞에 놓인 질문은 동일하다. 우리는 야훼께 모든 것을 드린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추구한 고라와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Mussar

1. Nearness to holy things is not the same as faithfulness to YHWH.

1. 거룩한 것에 가까이 있는 것이 곧 야훼께 신실한 것은 아니다.

2. Hidden ambition eventually reveals itself.
3. True worship is measured by surrender, not appearance.
4. Examine your heart before questioning others.
5. YHWH remembers every act of sacrificial devotion.

2. 숨겨진 야망은 결국 드러난다.
3. 참된 예배는 겉모습이 아니라 헌신으로 측정된다.
4.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5. 야훼께서는 희생적 헌신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